

간화선 수행의 현황과 제언

- 재가자 선수행을 중심으로 -

금강*

- I. 시작하기
- II. 중단 출범 이후 간화선 수행의 역사
- III. 승가의 선(禪)수행 현황
- IV. 재가자 선(禪)수행 프로그램 현황
- V. 주요 간화선 수행 사찰
- VI. 글을 마무리 하며

■ 한글요약

이 글은 한국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간화선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중생들의 삶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분석하였다. 재가자 대상의 간화선 프로그램을 운영 목적에 따라 ① 신행활동 목적형과 ② 체험목적형, ③ 집중수행형으로 구분하였다. 두 번째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개선방향은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참가자들의 근기와 준비정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 둘째, 수행의 보편화와 체계화를 위해서 재

* 해남 미항사 주지, 조계종교육아사리.

가자들의 수행 이력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수행지도인력과 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와 관리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간화선 수행에 한국불교의 정체성과 내용을 제대로 담기 위해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경전과 조사어록을 교재로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주제어 ● 간화선, 선수행 프로그램, 수행활동 목적형 프로그램, 체험목적형 프로그램, 집중수행형 프로그램

I. 시작하기

불교 수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日常)의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행위이다. 부처님께서 대기설법(對機說法)을 통해 청법자(聽法者)의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설법하신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수행법도 수행자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다. 다양한 불교 수행법 중에서 조계종은 간화선을 핵심 수행법으로 실천하고 있다.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전통을 이어받고 있지만, 선종을 표방한 임제(臨濟)선사 문하의 간화선 문중이다. 조사 공안의 화두를 주된 참구방편으로 하여 대부분의 선원에서 간화선을 수행한다.¹⁾

출가자들의 간화선 수행처소와 수행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내뿜을 만큼 많고, 수행론으로서의 가치도 강력하다. 하지만, 간화선을 수행하는 재가불자 인구는 그리 많지 않다. 종단의 불교사회연구소가 2013년 발간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불자 중 70.4%가

1) 원용(2000), 99.

실천 중인 수행법이나 기도법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있다’고 답한 불자들 중에서도 간화선을 수행한다고 응답한 불자는 4%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은 몇몇 사찰에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도 점차 증가 추세이다. 스님들처럼 안거수행을 하는 재가불자들도 늘고 있다. 일반인들 중에서도 간화선을 체험하기 위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선지식 및 지도점검 시스템의 부재 문제도 문답식 법회, 수행점검, 선어록 공부 등으로 해소하고 있다. 몇몇 스님들의 원력과 재가불자들의 열정이 동력이 되어, 간화선 수행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대중화된 명상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미약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오늘날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기 이전에 간화선 수행(포교)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전국선원수좌회에서 발표하는 방함록을 중심으로 승가의 선수행 현황을, 4장에서는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을 정리하였다. 5장에서는 간화선을 핵심 수행법으로 실천하는 사찰을 정리하였다.

II. 종단 출범 이후 간화선 수행의 역사

통합종단 출범 직후부터 조계종단은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간화선’ 수행을 독려하고, 수행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종헌의 전문과 종지 등을 통해 간화선 전통을 명확히 선언하였다. 종단이 처한 내외의 상황이 어려움에도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수행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동국대학교에 대학선원이 개설되었고, 범어사 금어선원, 용주사 중앙선원 등 선원이 개설되었다. 도봉산 천축사에서는 6년 동안 독방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수행만 하는 무문관 결사가 1965년 12월 27일에 시작되었다. 6년 폐관(閉關) 정진은 부처님의 6년 설산 고행을 따라하는 수행이며, 무문관 정진과는 별개로 대중방에서는 19명의 수좌가 100일 정진도 함께 시작하였다.²⁾

이러한 노력은 재가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 프로그램도 종단 창립 초기부터 등장하였다. 1960년 신도단체인 ‘대한불교조계종 달마회’에서 매일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저녁에 정기적으로 법회를 열어 좌선과 법문과 문답을 진행하였다. 1966년에 교계 신도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달마회 인천선원을 용화사에 개원하였다. 1969년에는 충남 대덕에 개원한 보림선원에서는 신도들에게 간화선을 지도하였다.³⁾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찰에서는 수련대회를 개최하였다. 수련대회에서 신도들은 스님들의 사찰 생활을 경험하였고 스님들은 이들에게 간화선을 지도하였다.

간화선을 실참(實參)하는 것을 넘어서, 재가불자들이 사찰에 기거하면서 출가자처럼 수행 정진하는 수행처가 개설되었다. 1965년 봉은사에 대학생 재가불자들이 참여하는 봉은사 대학생 수도원이 개설되었다. 이들은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새벽과 저녁에는 사찰에서 수행하였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하고 참선, 정진, 운력을 하는 하루 일과는 스님들의 결제와 동일하였다. 방학에는 특별정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생 수도원은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10년 간 유지되었다.⁴⁾ 대학생 수도원을 통해 당시 젊은 층에게는 불교에 대한 열

2) 박부영(2012), 78; 대한불교조계종종단화합과개혁을위한사부대중위원회(2016), 84-85.

3)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2000).

정이 매우 컸다는 점을 알 수 있다.⁵⁾ 이러한 열정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도 확인된다. 1963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결성되었고, 첫해부터 속리산 범주사에서 수련대회를 개최하였다. 첫해 수련대회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고, 프로그램 대부분은 참선과 강의로 구성되었다. 이후에도 매년 방학 기간에는 수련대회가 개최되고 있다.⁶⁾

1980년대에 들어 선방 수좌나 스님들 사이에서 간화선 수행 이외의 새로운 수행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87년 거해스님의 안내로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정비된 위빠사나가 소개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현지에서 수행법을 익히고 돌아온 스님들과 불자들이 선원이나 명상센터를 개설하였다. 위빠사나를 비롯한 남방불교의 수행법에 대한 관심은 수행(명상)에 대한 일반대중들의 욕구를 반영한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와 사회변화 속에서 한국사회에서는 마음의 안정을 찾아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개인주의의 확산과 극단적 이기주의를 경험하면서, 함께하는 삶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관심은 수행(명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종단은 2002년부터 교육원 불학연구소에 수행체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간화선을 비롯하여 각종 수행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포교연구원은 수행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2004년 『불자 수행프로그램 조사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2005년에는 교육원은 2005년 『간화선-조계종 수행의 길』을 발간하였고, 포교원

4) 박부영(2012), 98.

5) 젊은 층의 불교에 대한 열정은 당시 시대 상황과도 연결된다. 1960년대 본격적으로 공업화와 도시화가 시작되었고,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또한 서구 문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일부는 맹목적으로 서구문화를 추종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민중 고유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6) 박부영(2012), 98-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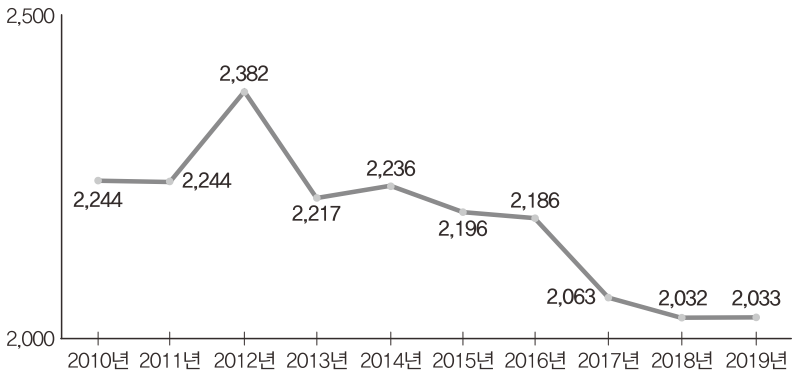
은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선 사찰에 보급하였다. 하지만 종단의 간화선 관련 정책은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최근의 간화선수행은 개별 사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Ⅲ. 승가의 선(禪)수행 현황

1. 안거대중

전국선원수좌회는 안거가 마무리되면 전국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방함록(芳啣錄)」을 발표한다. 「방함록」을 통해 선원과 안거대중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2019년 2월에 발표한 「무술년 동안거 선사방함록」에 따르면 총림 8곳, 비구선원 56곳, 비구니선원 36곳 등 총 100개 선원에서 총림 300명, 비구스님 1,047명, 비구니스님 686명 등 총 2,033명이 정진하였다.⁷⁾ 종단의 승가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지만, 대략 1만3천명 규모로 생각하면 15% 정도의 스님들이 동안거에 동참했음을 알 수 있다.

7) 매년 교계 언론에서는 전국선원수좌회에서 발표한 「방함록」에 의거해서 안거에 동참한 스님과 선원수를 발표한다. 이 논문에서 이 기사들을 확인하여 정진대중과 선원수를 정리하였다. 참고한 기사를 별도로 정리하지 않았다.



[그림 1] 지난 10년간 동안거 정진대중

[그림 1]에서 확인되듯이, 2011-2012년 사이에 정진대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완만하게 정진대중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⁸⁾ 정진대중의 규모 감소는 한국 불교의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출가자 감소와는 무관하다. 아직까지는 전체 승가의 규모는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안거기간 방부들 들고 수행 정진하는 스님들의 규모가 감소되었다고 이해된다. 또한 사회적 역할이 증가하면서 맡은 바 소임을 떠날 수 없는 승려수가 증가한 것도 감소 이유 중 하나이다.

선원 유형에 따라 정진대중 규모의 차이는 있었다. 총림에서 안거 수행하는 규모는 줄어들다가 올해 다시 300명 규모로 회복하였다. 비구니 선원도 방부를 든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올해 증가하였다. 반면에 비구 선원에서 수행하는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8) 무술년 동안거 전체 수행대중 인원이 2,033명으로 정유년 2,032명과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지속적인 감소 경향이 멈춘 것인지는 기해년 올해 정진대중의 규모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표 1> 5년간 동안거 정진대중 현황

	총계		총림		비구		비구니	
	인원	선원	인원	선원	인원	선원	인원	선원
무술년	2,033	100	300	8	1,047	56	686	36
정유년	2,032	94	286	8	1,108	57	638	29
병신년	2,063	96	283	8	1,093	56	687	32
을미년	2,186	102	307	8	1,129	59	750	35
갑오년	2,196	98	302	8	1,117	55	777	35

2. 선원

종단 「선원법」에 의하면, 선원은 기본선원과 전문선원으로 구분되며, 전문선원은 다시 일반선원, 총림선원, 특별선원으로 구분되다.

1) 기본선원

기본선원은 종단의 기본수행도량이며, 기본교육기관⁹⁾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결제기간에는 참선 위주로 정진해 정진력을 기르고 해체기간에는 선 중심의 교과안거를 받아 실천수행과 이론을 겸한다. 기본선원인 백담사 무급선원에서는 「육조단경」, 「선요」, 「신심명」, 「돈오입도요문론」, 「선교결」을 수학하며, 기본교육기관으로서 기본 공통과목도 함께 교육한다. 2019년 표준교육과정에 의하면, 선불교 관련 과목 중에서 필수과목은 3과목으로 「선학개론」(2학년 1학기), 「선어록 I」(3학년 1학기), 「간화선의 이해」(3학년 2학기)이며, 「선어록 II」, 「선수행록」, 「참선지도방법」은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었다. 기본선원의 수습기관은 4년이며, 1년 단위로 초급, 중급, 상급 및 연수과정으로 구분한다(「선원법」 제8조 1항 및 2항). 현재 종단의 기본교육

9) 기본교육기관에는 승가대학(강원), 중앙승가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경주) 불교대학.

기관 중에서 기본선원은 1곳이 운영되고 있다.

2) 일반선원

참선에 전념하기 위한 수행도량으로 전문선원이 있다. 전문선원은 일반선원, 총림선원, 특별선원으로 구분한다. 총림을 제외한 비구 및 비구니 선원이 해당되며, 봉암사 등의 총림선원은 여기에 포함된다. 조실을 정점으로 나머지 상소임들은 총림과 대동소이하나, 모든 소임을 제대로 갖춘 곳은 드물다.¹⁰⁾

2015년 개정된 「선원법」 별첨자료에 총림 8곳과 비구선원 37곳, 비구니선원 28곳의 선원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방함록을 참고하면 총림을 포함 100여개 정도의 선원이 운영되고 있다.

IV. 재가자 선(禪)수행 프로그램 현황

1.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른 구분

재가불자와 일반인을 위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목적, 프로그램 참여 대상, 프로그램 일정, 프로그램에서 실참하는 수행의 깊이,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근기(根機) 등이 다양하다. 프로그램의 참여대상,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 등이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변경된다. 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목적을 중심으로 유형을 정리하였다.

사찰에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신도들의 신행활동을 위해서이다. 사찰에서는 수행 프로그램을 신도들의 근기에 따라 초심자(혹은 입문자) 수행 프로그램과 심화(혹은

10) 원용(2000), 101.

집중)수행 프로그램으로 구분·운영한다. 두 번째 목적은 불교문화의 하나로서 간화선 수행을 체험하는 것이다. 템플스테이를 총괄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체험형 프로그램¹¹⁾으로 분류한 프로그램들 대부분이 이 유형에 속한다.¹²⁾ 세 번째 목적은 집중수행(혹은 철야용맹정진)이다. 대부분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체험형 프로그램)은 1박2일 정도의 일정이며, 전체 일정에서 수행 시간은 1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만이 할애된다. 이에 반해 집중수행형 프로그램은 일정 대부분이 참선과 법문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4일 이상의 일정으로 구성된다. 1박2일 일정의 경우에는 철야정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간화선 수행을 사찰의 핵심 수행론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찰에서 주로 운영한다.

아래에서는 3가지 목적의 프로그램 중에서 체험목적형 프로그램과 집중수행형 프로그램을 정리하였고, 첫 번째 목적의 프로그램은 다음 절에서 정리였다.

2. 체험목적형 프로그램

체험목적 프로그램은 1박2일 정도의 짧은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행은 참여자들이 체험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대략 1시간 정도 짧게 구성된다. 템플스테이 사이트에서 참선, 수행, 좌선 등의 검색어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25개 사찰에서 체험목적

11) 템플스테이 홈페이지에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산사에 2일 이상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www.templestay.com).

12)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불교문화 체험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본형과 추가형의 체험 프로그램과 휴식형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이중 체험 프로그램은 전체의 78.8%를 차지하고 있다(박태원, 2017: 411).

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발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참선/명상 프로그램은 227개 12.3%로 조사되었다.

<표 2> 체험 목적형 프로그램

사찰명	프로그램 명
갑사	주말(공휴일) 체험형 프로그램
고운사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
국제선센터	숨 쉽 템플스테이, 토요 담마 클래스(외국인 대상)
금선사	체험형 산사에서 길을 묻다(주말, 1박2일)
도림사(대구)	깨어남awaking(체험형)
동화사	체험형 “願, 이루다”
묘각사	“where is mind?”(체험형)
미황사	고요한 소리
백양사	휴식형 날마다 좋은날
봉은사	1박 2일 정기 템플스테이
범어사	금어 템플스테이, 산행 템플스테이
법주사	참 나를 찾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공부’
서광사	지금 어때?
석종사	5분만 바라봐
선암사(순천)	생각하며 느끼며(2박 3일), 다만 꽃이 되어(1박 2일)
신흥사(완도)	바다소리 풍경소리
쌍봉사	명상
영국사	체험형 프로그램, 휴식형 프로그램
영랑사	일일체험 템플스테이, 승승장구로 가는 길(주말체험형)
전등사	쓰담쓰담 템플스테이(주말, 토·일)
학림사	생각을 쉬어가는 절[3일]
화계사	참 나를 찾아서(체험형)
회암사(양주)	당일 체험 참선 프로그램
홍국사(고양)	참 나를 찾아서(체험형)
홍국사(여수)	여수 밤바다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자료 : 템플스테이(www.templestay.com)

1) 수행 체험 프로그램

수행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간화선 수행에 대한 관심보다는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단순 휴식(혹은 힐링)을 위해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불자보다는 일반인들이며, 불자라 하더라도 간화선 수행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게 체험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기는 어렵고 이들 역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선수행을 위한 시간은 1박2일간 진행되는 일정 중에서 1시간 정도 할애된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1시간 이상 할애되기도 하지만, 아침 예불 후에 짧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수행 체험 프로그램은 여수 흥국사에서 운영하는 「여수 밤바다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이다. 일정에는 사찰에서의 체험과 지역의 다양한 관광, 문화 체험도 포함되어 있다.

2) 집중수행 예비(준비) 프로그램

체험목적형 프로그램 중에서 참선 수행에 관심과 뜻은 있지만 아직 경험은 없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다. 본격적인 집중 수행을 위한 예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집중수행 목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에서는 예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일반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수행 체험 프로그램과 다르게 단순 체험에 머물지 않고, 보다 심화된 수행으로 이어지게 하는 예비(혹은 입문)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석종사에는 집중수행 목적형 프로그램인 「참 나를 찾아서」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예비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닌 「5분만 바라봐」 프로그램이 있다. 석종사는 이 프로그램을 ‘참선을 처음 접해보고자 하는 분’들 위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 일정은 참선 체험과 문답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초심자들의 궁금증을 바로 해결하기 용이하다. 감사에서 운영하는 주말(공휴일) 체험형 템플스테이도 비슷한 유형이다.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중에서 유일하게 무문관을 진행하는 감사에서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이전 단계로써 참선 수행을 체험하는 1박2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림사의 「생각을 쉬어가는 절」과 미황사의 「3일 참선-지혜의 검」도 이와 유사한 성격의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은 전체 일정에서 참선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수행의 정도가 깊고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근기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들은 7일 이상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선택하는 프로그램이란 성격도 지니고 있다.

3. 집중수행 목적 프로그램

집중수행 목적 프로그램은 4일 이상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일정 대부분이 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중에서는 17개 사찰에서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들은 대부분 수행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1박2일 짧은 일정으로 철야정진 형식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재가불자들을 대상으로 안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도 있다.

1) 집중수행 프로그램

대표적인 집중수행 프로그램은 미황사의 「참사람의 향기」이다. 참사람의 향기는 7박8일 일정이며, 좌선과 법문, 수행문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심자도 등록이 가능하며, 초심자들을 위해 첫째 날에는 습의로 구성되어 있다. 본격적인 수행은 둘째 날부터 시작된다. 참가자들을 구참자로 제한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는 습의 일정은 없으며, 첫날부터 참선이 시작된다. 미황사에서는 7박8일보다 짧은 ‘3일 참선수행-지혜의 검’도 진행하고 있다. 자비선사에서는 6박7일 일정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마음을 찾아서」를 진행하고 있다. 갑사에서도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박5일 일정의 프로그램은 심화과정, 2박3일 일정의 기본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축서사에는 6박7일 일정의 참선 집중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철야참선과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일요일(입재)부터 최소 3박 4일 이상 신청할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6박7일 동안 법사스님의 지도로 하루 10시간 정진하고, 마지막 날에는 무여스님의 법문 및 수

행점검 시간이 진행된다.

2) 철야정진 프로그램

또 다른 유형의 집중 수행 프로그램으로 철야정진 프로그램도 있다. 용주사(화성)에서는 1박2일 참선 철야정진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달리 저녁 7시에 시작되고, 프로그램 안내인 ‘스님과의 대화’는 약 1시간 진행된다. 스님과의 대화 후에는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철야정진을 이어간다. 철야정진을 마친 후에는 30분 휴식 후에 새벽예불과 스님과의 대화 후에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철야정진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영국사(영동군 양산면)에서도 「참선수행 템플스테이」에서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참선 시간을 진행한다. 봉녕사에서 저녁 6시 30분에 시작되어 3시 30분에 회향할 때까지 거의 모든 일정을 좌선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성도재일의 철야정진 프로그램으로 저녁 10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성불도 놀이를 진행한다는 특징도 있다.

철야정진 프로그램 중에서는 학림사 프로그램이 눈에 띈다. 학림사에는 6박7일 철야정진 프로그램 「용맹정진」과 주말 1박2일 프로그램 「바로보라!」를 운영하고 있다. 「용맹정진」은 1년에 4회 개최되며, 2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예불과 공양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참선 시간이다. 7일차 새벽 시간에 ‘선지식과의 대화 및 소감나누기’를 끝으로 주요 일정이 마무리 된다. 「바로보라!」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철야정진이 진행되며, 철야정진 전후에 참선법문이 2차례 구성되어 있다. 특히 철야정진 후 다음날 아침 법문시간에는 질문응답도 함께 진행된다. 축서사에도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토요 철야참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저녁 8시 무여스님의 선수행 법

문으로 시작되고, 참선수행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진행된다. 참선수행은 구참반과 초심자반으로 나뉘어 각 코스에 맞게 수행 정진한다. 프로그램은 다음날 오전 8시에는 무여스님의 소참 법문과 수행에 대한 질문응답 시간으로 마무리된다.

3) 안거 프로그램

안거 기간에 출가자들처럼 방부를 들고 동일하게 집중 수행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석종사는 안거 기간에 「참 나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중 2회 진행되며 부분참가와 전일참가로 구분된다. 프로그램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다. 자체 선원 청규를 반드시 수지해야 하며, 참가자들은 반드시 정진에 참여해야 한다. 정진시간에 불참한 경우에는 퇴실처리 된다. 예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대중은 참석해야 한다. 축서사에서 하안거 기간에 21일 일정으로 하안거 정진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예불과 공양, 청소, 그리고 4번의 입선으로 하루 일정이 구성되어 있다. 해제일에는 무여스님의 법문과 질의응답 시간이 약 2시간 정도 할애되어 있다.

V. 주요 간화선 수행 사찰

대부분의 사찰은 신도들의 수행활동을 위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여러 이유에서 의례와 기도 중심으로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도교육 프로그램과 수행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간화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들이 있다.

1. 안국선원

안국선원은 1989년 간화선 수행도량으로 부산에서 개원하였고, 현재 부산과 서울에서 약 3천여 명의 신도들이 참선 수행과 정진에 매진하고 있다.¹³⁾ 간화선 수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심자 수행과정 프로그램과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도회원 수행과정 프로그램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초심자수행과정 프로그램」은 법문과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매월 정기법회일에 초심자법문이 있으며, 법문을 듣고 발심한 초심자가 참가신청을 한다. 초심자는 선원장스님으로부터 화두를 받은 후 약 1주일간 화두를 타파하기 위한 용맹정진에 들어간다.¹⁴⁾ 선원장스님은 매일 법문시간에 공부과정을 개인별로 근기에 맞게 지도 점검한다. 초심자는 정진기간 동안 묵언을 원칙으로 자율적인 수행에 임한다. 정진기간 동안 화두 참구를 통해 선정(禪定)의 수행 경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점검받고 초심자 과정을 마치게 된다. 「신도회원 수행과정 프로그램」은 정기법회와 안거로 이루어진다. 「초심자수행과정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신도회 정식회원으로 가입해 매월 두 차례(매월 음력 2일과 16일) 정기법회에 참가해 법문을 듣고 점검을 받으면서 스스로 각찰(覺察)과 휴심(休心)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신도회원들은 매년 동안거와 하안거 기간 동안 매일 4시간(선원에서 2시간, 가정에서 아침과 저녁에 각 1시간)씩 안거수행을 지켜나가야 한다. 신도회원은 대중수행기간 중에는 묵언을 하며 내면을 성찰할 뿐 동정(動靜)에 귀를 기

13) 안국선원 홈페이지(www.ahnkookzen.org)

14) 수불스님은 간화선 입문 초심자들에게 1700 공안 중 하나를 주지 않는다. 손가락 하나를 ‘굽혔다 폈다’ 하며 “무엇이 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느냐”며 묻는다(<법보신문>(2011.10.19.),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울이지 않아야 한다. 대중의 화합을 깨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¹⁵⁾

1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2004), 111-112.

2. 금강선원

금강선원에서는 1988년 개포동에서 개원하였고, 간화선을 기초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경전 강의와 법문, 참선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참선 수행은 기초참선, 참선모임 정수회, 중고등학생, 대학생 참선반 등으로 구분하여, 신도들의 근기와 여건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참선반이 별도로 운영되는 사찰은 금강선원이 거의 유일하다.

참선반은 3단계, 기초참선반-중급참선-고급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낮은 단계는 기초참선반으로, 2019년 현재 34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회 140명 이상이 등록한다. 참선을 처음 접하는 성인들이 대상이며, 좌선하는 법과 집중하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지도한다. 12주 과정으로 주1회 교육이 진행된다. 교재는 「좌선의」를 사용한다. 기초참선반을 이수하면 각자의 의지에 따라 정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중급참선은 금강명상지도사 자격증의 일환으로 기초에서 배운 좌선과 집중, 마음 다스리는 법을 더욱 집중적으로 배워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도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재는 「수심결」이다. 고급참선 과정은 각자 수행에 맞는 방법을 택하여 수행법을 더욱 심도 있게 하며, 참선 이론도 병행하여 지도한다. 교재는 「심우도」이다. 모든 과정은 혜거스님이 직접 지도한다.¹⁶⁾

기초참선반을 수료하면 참선모임인 정수회에 가입하여 매주 한 번씩 참선모임을 갖는다. 기초참선반에서 진행한 훈련과 각각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때의 과제는 화두와는 다르다. 금강선원에서는 화두를 주지 않고, 개인적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탐구해 나가면서 스스로 느낀 것을 스스로 화두로 삼아간다. 그리고 스스로 정한 화

16) 금강선원 홈페이지(www.geumgang.org)

두를 스님께 허락받는 과정을 밟는다. 정수회 회원들은 자신의 과제와 나름대로 내린 해답을 헤거스님과 대화를 통해 점검해 가며 점차 역대 선지식이 들었던 화두를 참구하기 시작한다. 금강선원은 2000년 7월 홍천의 폐교를 인수해 참선수련원 선문장(禪門莊)도 개원하였다. 정수회 회원들은 한 달에 한 번 선문장에서 수행하며 여름 수련회도 선문장에서 개최한다. 선문장에서의 수행은 산사수행과 다름이 없다. 새벽 4시 기상해 4시 30분 아침예불과 108정진을 한 후 하루 10시간의 좌선과 행선을 거듭한다.¹⁷⁾

3. 원명선원(활인선원)

제주도에 위치한 원명선원은 1976년에 개원하였고, 개원 첫해부터 현재까지 간화선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일요참선 법회도 봉행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안성에 활인선원을 개원하여, 전국단위의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련회 수료자들이 중심이 되어 매주 토요일(활인선원)과 일요일(원명선원)에 참선법회를 진행한다. 2004년에는 재가불자들을 위한 참선불교대학과 참선 전문과정인 선불장을 개원하였다. 교육기간은 1년 과정과 단기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한다.¹⁸⁾

원명선원에서는 수행 과정에서 별도의 화두를 주지 않는다. 청법과 문답을 통한 교육이 조사선 수행의 전통이라는 인식에 근거한다.¹⁹⁾ 조사선 체험 수련회는 2박3일 일정과 5박6일 일정으로 개최되며, 고등학생 이상이면 참가 가능하다. 삼매체험, 참선·단식수련을 비롯한

17)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2004), 107; <법보신문>(2004.6.21.), 「참선도량 금강선원」.

18) 원명선원 홈페이지(www.wseon.com); 활인선원 네이버카페(www.hwalin.net).

19)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2004), 112-113.

명소 행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대효스님과의 문답식 법문, 즉문즉답, 정진(와선, 행선, 좌선, 침선), 공부점검, 단식, 선어록 독송, 요가, 율력, 명소 산행 등을 통해 자신의 수행을 점검한다. 수행 일정표는 있지만, 수련회의 다른 명칭이 ‘애쓰지 않고 깨닫는 조사선 체험’일 만큼 프로그램을 강요하지 않는다.

원명선원은 “고통 끝 행복 시작”을 모토로 고통과 번민에 빠진 사람들을 위한 「고맙 참선 캠프」(이하 고맙캠프)도 운영한다. 고맙캠프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고, 참가인원은 40~50명 인원 제한을 두고 있다. 참가자들은 고등학생인 10대 청소년부터 20대 청년, 30대 직장인과 주부, 40~50대 중장년층까지 연령 직업도 다양하다. 이들은 대중 법문, 선수행을 통한 자기 성찰의 시간, 율력 등을 통해 자신들이 경험했던 다양한 일상 속 다양한 고민들을 생각하고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²⁰⁾

4. 해인사 원당암

해인사와 역사를 같이하고 있는 원당암은 창건 이후 수많은 선현 대덕 큰스님들의 수행처가 되었으며 재가불자들의 기도처였다. 오늘날에는 스님들과 똑같이 일반인들도 여름과 겨울에 한철씩 안거(安居)에 들어가 수행을 하는 재가불자 참선도량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가불자들이 수행하는 달마선원은 1985년 개원을 해 가장 오래된 곳이다. 하루 10시간 가행정진 토요일 일요일은 용맹정진 해제를 앞둔 7일간의 용맹정진이 달마선원의 ‘기본’이다.²¹⁾

20) 제주 원명선원 홈페이지(www.wseon.com); <불교신문>(2018.12.19.), 「제주 원명선원」.

21) 원당암 홈페이지(www.wondangam.org); <불교신문>(2004.8.18.), 「최고의 재가선원-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

재가자들을 위한 참선 프로그램은 참선결재와 용맹정진으로 이루어져있다. 달마선원에서는 안거와 산철결제 기간에 재가불자들이 참선 정진한다. 용맹정진 프로그램은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진행되는 1박2일 일정의 용맹정진과 안거기간 중에 7일간 진행되는 7일 철야용맹정진 프로그램이 있다. 안거 때는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부를 들이고 토요일 참선법회에는 200~300여 명이 전국에서 참여한다. 불자들은 하루 8시간 정진한다. 오전 3시~5시, 8시~10시, 오후 2시~4시, 저녁 7시~9시에 참선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정진으로 진행된다.²²⁾

5. 용화선원

인천 남구에 위치한 용화선원은 활구참선 도량이다. 1961년에 전강선사가 용화사에 선원을 개설하였고, 1975년부터는 송담스님의 지도 아래 정통 활구선을 닦고 있다. 보살선원과 시민선원 두 곳을 운영하고 있다. 보살선원은 스님들과 똑같이 안거 기간을 정해서 수행하는 선원이며, 재가여성불자들이 참여한다. 1984년에 개원하였고, 1년에 네 차례, 동안거(음 10월 15일-익년 1월 15일), 춘계산철(음 2월 1일-3월 15일), 하안거(음 4월 15일-7월 15일), 추계산철(음 8월 1일-9월 15일)에 방부를 들인다. 숙식과 출퇴근 모두 가능하다. 해마다 결제철이 되면 150여 명의 재가자들이 참여한다. 시민선원은 1992년에 개원하였고, 남녀 구분 없이 참선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시민선원에서는 안거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지만, 한 달 단위로 입방할 수 있다. 해제철에도 매달 300여명이 방부를 들이고 있다.²³⁾ 초보 참선 교육은 용화선원 조실인 전강스님과

22) 원당암 홈페이지(www.wondangam.org).

선원장 송담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를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화두 드는 법’, ‘호흡법’, ‘자세’ 등을 익힌 뒤 새벽 4~5시, 오전 8시~10시, 오후 2시~4시, 오후 7시~9시에 있는 시민선방의 정진시간에 자유롭게 참선할 수 있다.²⁴⁾

6. 조계사 선림원

선림원(禪林院)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서 2011년에 개설한 2년 과정의 참선 수행 전문교육기관이다. 참선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전문적인 선수행을 하고자 하는 불자로 입학 자격을 제한한다. 조계종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불자나 조계사 참선입문과정을 이수한 불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입학 자격이 주어진다.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입학생을 선발한다. 선림원은 2년 4학기제로 운영되며, 불교와 선, 선의 원리와 역사, 선어록 연구, 선과 사회 등의 강의와 함께 참선실수가 진행된다. 1학기는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과 불교 핵심교리를, 2학기는 「서장」과 선종사 등을, 3학기는 「육조단경」을, 4학기는 「금강경」 등을 교육하고 있다. 참선 실참은 학생 10명당 1명의 참선 지도 수좌스님을 배정해 집중적으로 지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계사는 선림원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도 계속 수행 정진할 수 있도록 자율선원을 1년 내내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저녁에는 선림원 동문이 모여 합동수련을 진행한다.²⁵⁾

23) 용화선원 홈페이지(www.younghwasunwon.or.kr); <불교신문>(2005.11.7), 「인천 용화선원 시민선방」.

24) <불교신문>(2005.11.7), 「인천 용화선원 시민선방」.

25) <불교신문>(2017.12.31.), 「“참선을 만나 인생 돌아보고 삶도 달라졌어요»; <불교포커스>(2011.1.18.), 「조계사 선림원 개설·이론 실참 지도」.

VI. 글을 마무리 하며

이 장에서는 연구자의 선수행 프로그램 지도 경험을 정리하고, 이 경험에 근거하여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의 나아갈 방향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1. 참선 수행 프로그램 지도 경험

1) ‘참사람의 향기’의 교리적 토대

연구자는 서옹스님의 영향으로 수행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도하기 시작하였다. 서옹스님의 ‘참사람사상’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참사람에 이르는 수행론으로 간화선을 실천하고 있다.²⁶⁾ 연구자가 지도하는 수행 프로그램들은 수행처와 일정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참사람사상’을 교리적 토대로 하고 간화선을 수행법으로 체계화된 프로그램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참사람’은 수행을 통해 도달하려는 목표로서 첫째,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에 예속되지 않은 자유자재한 존재, 둘째, 대자연과의 관계를 연기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행동하는 존재, 셋째, 자비를 실천하는 존재이다. 참사람이 되기 위한 수행법으로서 간화선(조사선)은 ‘참사람’의 핵심이다. 서옹스님은 ‘부처님이 깨달은 돈성(頓性)하는 조사선은 학문이 없어도 기억력이 둔해도 고요히 앉아서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절대적으로 꾸준히 의심하면 나의 참된 본래면목이 스스로 깨달아 집니다’라며 선수행에서는 지식보다 올바른 수행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와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수행법이며, 가장 쉽고 올바른 수행법이라 권장하였다. 이는 서구사회에서 선(禪)에 붐이 일어나는 것에서도 확인된다고 서옹스님께서서는 언급하였다. 참자유를 아는 존재, 현대문명을 넘어선 활발활한 존재는 선수행을 통해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선을 사회화하고 대중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²⁷⁾

26) 서옹스님의 참사람 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구자의 박사학위논문, ‘서옹스님의 참사람사상에 관한 연구’를 참고할 것.

27) 오종만(2015), 133-136.

2) ‘참사람의 향기’ 수행 프로그램 종류

연구자가 지도하는 대표적인 수행 프로그램은 ‘8일 참선 집중 수행-참사람의 향기’와 ‘3일참선-지혜의 검’ 프로그램이다. 두 프로그램은 모두 미황사에서 매월 진행하며 초심자를 위한 ‘3일 참선-지혜의 검’은 19회, ‘8일 참선 집중 수행-참사람의 향기’는 116회를 진행하였다. 각각 하루 6시간의 좌선과 수행문답, 강의로 이루어진다. 강의는 좌선 습의, 수행론, 화두간택, 좌선의(종색선사), 육조단경(혜능선사)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구참자를 위한 수행 프로그램을 미황사에서는 매년 한두 차례 실시하며 매일 6시간 참선과 「금강경」과 「선가귀감」, 「신심명」을 강의한다. 행복공장 흥천수련회에서는 2014년부터 매년 2회 ‘7일 참선-무문관’ 수행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1.5평 독방에서 머물며 혼자 참선 수행을 한다. 방송으로 108배와 혜개스님의 공안 해설집 『무문관(無門關)』을 교재로 강의하고, 수행문답을 별도로 진행하였다. 한국문화연수원에서는 참선입문과정과 심화과정을 지도하였다. 고우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진행하였다. 입문과정과 심화과정 3박4일의 참선 프로그램이었다.²⁸⁾ 또한 참선 구참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재가안거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동·하안거 기간 ‘재가안거수행록’을 수행자가 직접 작성하며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며, 매회 50여 명씩 참여하고 있다.

2. 요약과 제언

1)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 유형과 체계

28) <금강신문>(2018.8.27.), 「재가자 위한 ‘무문관 프로그램’ 마련」.

1970년대 후반부터 개별 사찰에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 템플스테이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일반인도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개발되면서,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은 대략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순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주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일반인들이 불교문화를 체험하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일정은 1박2일 정도이며, 참선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두 번째 유형은 집중수행형 프로그램이다.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운영하는 4일 이상의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이나 1박2일(혹은 그 이상) 일정으로 진행되는 철야용맹정진 프로그램, 안거기간 선원에서 진행되는 안거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이미 간화선을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마음과 뜻을 낸 사람들이다. 세 번째 유형은 예비 프로그램으로 집중수행형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이해된다. 집중수행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찰에서 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 운영사찰들은 참여자들의 수행 깊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기간과 참선 시간들을 배분하고, 이를 통해 간화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체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에는 수행점검을 위해 법문과 질의응답을 일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수행점검 시간도 매일 배분하거나 프로그램 시작과 마무리에 배치하여 참여자들의 변화를 점검하고 적절한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선원이나 사찰의 주지스님 혹은 조실스님, 선원장스님 등이 직접 담당하여 책임을 다하고 있다.

2)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유형 재조정

수행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참가자들의 구성도 중요하다. 특히, 집중수행형 프로그램의 성패(成敗)에는 참가자들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집중수행형 프로그램 운영사찰에서 방부를 들이기 전에 참가자들을 면담하거나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이다. 이는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도 동일하다. 프로그램을 따라할 수 있는 건강과 마음상태인지를 점검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사찰과 선원의 청규를 사전에 알리고, 이를 어길 경우 퇴실된다는 점도 강조한다.

사회에도 수행(명상)의 긍정적 측면이 알려지고, 템플스테이 사업에 따라 선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도 높아졌다. 이로 인해 수행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의 참가도 늘고 있다. 수행에서는 선지식의 지도와 역할의 중요성만큼이나, 선지식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다. 선지식 부재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있지만, 재가자들이 참여하는 대다수 수행 프로그램에서는 선원장스님들이 수행점검과 지도를 맡고 있다. 재가자 대상 수행 프로그램에서 만큼은 수행을 찾는 사람들의 발심과 참선에 대한 신심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유형(체험형, 휴식형, 당일형)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체험형의 경우 수행의 종류와 요구되는 수행의 깊이를 신청자들이 알기 쉽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한 유형처럼 체험형 - 입문형 - 집중수행형으로 구분하는 것도 방법이다. 브랜드 템플스테이 ‘여여(如如)’는 수행 목적의 프로그램과 유사하지만, ‘차분한 정취와 사유를 통해 나 자신을 내려놓는 방법(명상 심리, 상담 심리, 분노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수행 프로그램의 성격과는 다르다.

3) 재가자들의 수행 관리 체계화

승가의 경우는 결계록과 방함록을 통해서 선원과 정진대중의 각종 정보가 기록된다. 하지만 재가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록체계가 없다. 수행의 보편화와 체계화를 위해서는 재가의 경우에도 수행이력을 관리하는 체계가 요구된다.²⁹⁾ 모든 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우선은 전국의 재가선원에서 안거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력부터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후 개별 사찰에서 진행되는 간화선 수행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력도 정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종단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하듯이, 종단의 관심이 부족하다. 관련 정책도 없는 실정이다.

개별 사찰 주지스님들의 원력과 재가불자들의 관심과 참여에 의해 수행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의해 종단의 수행문화가 발전하고, 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수행에 대한 종단의 공식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한계들이 있다. 우선은 수행지도 인력의 문제다. 수행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많다.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참선지도자협회³⁰⁾와 한국명상지도자협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상담개발원에서 지도자 양성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수행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는 사찰도 있다. 교육기관에 따라 양성된 지도자의 수준과 기초하고 있는 수행론과 수행체계 등이 다를 경우, 조계종 수행 체계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

29) 이전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에서 재가안거수행결사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사무국에서 참가사찰과 사찰별 동참자 이력을 취합하여 관리하였다. 나아가 안거 이력을 근거로 하는 품계 등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30) 한국참선지도자협회는 선승들이 모여 2018년에 설립한 단체이다.

관들이 참여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현황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수행의 종류와, 프로그램 내용, 참가자, 일정 등 기본적인 내용이 조사되고 축적되어야 한다.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종책 수립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종단에서는 프로그램의 수행 깊이를 단계화하고, 일정 단계 이상을 종단의 간화선 수행 프로그램으로 공식화하는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4) 경전과 조사어록을 토대로 간화선교육의 교전이 필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참선교육의 교전이 필요하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청허휴정스님의 「선가귀감」이 교전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선가귀감」은 청허스님이 깨달음을 이룬 후 10여 년 동안 50여 권의 경론과 조사어록에서 참선수행에 요긴한 것을 추려 모아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³¹⁾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 씀이다”, “선과 교의 근원은 부처님이고, 선과 교의 갈래는 가섭과 아난이다”라는 선교관을 뚜렷이 하였다. 선의 입장에서 계율관, 진언, 예배, 염불, 간경을 다 수용하고 있는 한국전통의 통불교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조사들의 다섯 갈래인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 위양종, 법안종까지 정리하였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금강선원에서는 「좌선의」, 「수심결」, 「심우도」를 강의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용화선원에서는 화두드는 법, 호흡법, 자세 등을 전강스님과 송담스님의 음성과일을 이용하여 교육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조계사 선림원에서는 참선입문, 「서장」, 선종사, 「육조단경」, 「금강경

31) 법정(1990), 6.

을 강의 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황사에서는 「좌선의」, 「육조단경」, 「금강경」, 「무문관」, 「선가귀감」, 「반야심경」을 강의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 참선 지도를 하는 곳 중에서 경전과 조사어록을 토대로 하는 교육교재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은 지도하는 분의 안목에 의존하여 참선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문헌>

1. 논문 및 보고서

- 고명석(2007), 「수행포교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선문화연구』 3.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2000), 『선원총람』, 서울:시대불교사.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2016), 『조계종 수행 현황과 과제 연구보서』, 불교사회연구소.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2014), 『재가불자를 위한 수행체계 연구』, 불교사회연구소.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2004), 『재가불자의 간화선 수행의 과제와 개선방안』.
- 박부영(2012), 『불교신문으로 본 조계종단 50년사』, 서울:불교신문사.
- 박태원(2017), 「우리나라 템플스테이의 활성화 방안」, 『한국불교학』 82.
- 법정(1990), 『깨달음의 거울』, 불일출판사.
- 서재영(2006), 「간화선 대중화의 문제와 과제」, 『한국선학』 15.
- 조기룡(2016), 「불교 수행 프로그램의 실태분석과 개선 방향」, 『선학』 43.
- 오종만(2015), 「서용석호의 참사람사상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불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오원철(2013), 「명상 붐의 국내외적 현황과 추이」, 『불교평론』 55.
- 윤종갑(2009), 「현대 조계종 출가자의 수행형태와 체계」, 『동아시아불교문화』 3.
- 원용(2000), 「선원의 운영현황과 문제」,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총람』, 서울:시대불교사.
- 정영식(2009), 「안국선원의 수행체계와 성공요인」, 『동아시아불교문화』 3집.
- 법정(1990), 『깨달음의 거울』, 불일출판사.

2. 언론기사

- <금강신문>(2018.8.27.), 「재자가 위한 ‘무문관 프로그램’ 마련」.
<법보신문>(2004.6.21), 「참선도량 금강선원」.
<불광미디어>(2018.9.4), 「참불선원 재가불자 하안거 참선정진」
<불교신문>(2017.12.31.), 「“참선을 만나 인생 돌아보고 삶도 달라졌어요」.
<불교신문>(2005.11.7), 「인천 용화선원 시민선방」.
<불교신문>(2004.8.18), 「최고의 재가선원-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
<불교신문>(201.12.19), 「제주 원명선원」.
<법보신문>(2011.10.19), 「안국선원장 수불스님」.
<불교포커스>(2013.11.1), 「공부하다 죽어라」.
<불교포커스>(2011.1.18.), 「조계사 선림원 개설..이론 실참 지도」.

3. 인터넷사이트

- 금강선원 홈페이지(www.geumgang.org)
안국선원 홈페이지(www.ahnkookzen.org)
원당암 홈페이지(www.wondangam.org)
원명선원 홈페이지(www.wseon.com)
용화선원 홈페이지(www.younghwasunwon.or.kr)
활인선원 네이버카페(www.hwalin.net)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찬불선원 네이버 카페(cafe.naver.com/chambul3280)

■ Abstract

A Status and Suggestions about Ganhwa Seon practice programs

Ven. KumGang

This article seeks two purposes. The first purpose is to clarify how Ganhwa Seon, the traditional practice of Korean Buddhism, is currently being done, and the second purpose is to suggest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Ganhwa Seon practice program to respond more positively to the problems of Korean people. This paper summarizes the status of seon practice programs for lay Buddhist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Ganhwa Seon programs, the Seon programs can be classified into ① a Buddhist Activities program type, ② a Buddhist Culture Experiential program type, and ③ an intensive seon practice program type. Secondly, there are three ways to improve the Ganhwa Seon practice program. First, the type of templestay program should be subdivided so that participants can choose a program based on their capability and level of preparation. Second, to generalize and systematize practice, it is necessary to record and manage the records of the lay Buddhist. Finally, to include the identity and contents of Korean Buddhism in the Ganhwa Seon practice, it is also necessary to utilize the Buddhist Scriptures and the spiritual patriarch books that contain the identity of Korean Buddhism as textbooks.

Keywords ● Ganhwa Seon(看話禪), Seon practice program, a Buddhist Activities program, a Buddhist Culture Experiential program, a intensive seon practice program